

#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The Family's primary social network, the Family's participation in social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in job hunting, by Social class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오 선 주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h, Sunjoo

## 〈목 차〉

- |                |             |
|----------------|-------------|
| I. 서 언         | IV. 결과 및 해석 |
| II. 사회망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different relationships the family has with its social networks by social class. Among research families' primary social networks, the wife's relatives are the most, the neighbor the second, the husband's relatives the third, and the church (or other religious groups) the fourth. Social class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in what social network is the family's primary social network.

When the husband or the wife participates in a social network, he or she tends to participate alone without his or her spouse. When the husband's educational level is high, the wife tends to participate in her alumni association alone. When the husband is in a professional or a white-collar occupation, he is likely to socialize with his work associates alone. On the contrary, when the family income gets high, the husband tends to bring his wife to his alumni association.

When looking for a job, most husbands and wives do not resort to a social network for help. Lower-class people are more likely to obtain jobs through their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다른 논문이 이미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17집(1990)에 발표되었다.

social networks compared to higher-class people. That is, the lower one's educational level, one's occupational status, or the family income is, the more likely one gets help from some social networks in searching jobs.

## I. 서 언

인간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주요한 기본적 단위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가족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망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망과의 상호작용은 우선 경제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의 교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일손의 도움이나 비상시의 도움, 상호접촉을 통한 가치관의 교류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망 중 어떠한 사회망이 가족에게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가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Litwak 과 Szelenyi(1969)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1차집단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각 종의 1차집단들이 가족에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친척은 장기적 유대가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은 비상시에 도움을 주며, 친구는 가족과 이질적인 면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측면의 도움을 준다고 1차집단의 기능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도 과거에는 친척이 가장 주요한 사회망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지리적 이동, 사회적 이동으로 인해 친척과의 교류가 적어지고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망들, 예를 들면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종교집단 등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망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교육제도는 친구, 동창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직업구조상 가족부양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동료와 함께 지내게 되어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종교의 유입은 과거의

우리나라의 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친척관계가 가장 주요한 사회망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망에 대한 연구도 주로 친척관계에 대해서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사회망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특히 여러종류의 사회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망을 연구에 포함시켜 여러 종류의 사회망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사회망이 우리나라의 가족에게 주요한 사회망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가족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수입 등의 측면에서 본 가족의 사회계층은 가족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가족의 생활양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비공식적 사회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별로 주요사회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계층별로 사회망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망에의 가족참여도와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사회망

사회망이라는 용어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Milardo(1987:20)는 사회망이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부부를 알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h(1988)는 사회망을 “개인 또는 가족 주위에 형성된 망으로서 그것을 통해 정보, 정서, 도움 또는 금전이 양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

족을 분석단위로 하고 그 가족을 둘러싼 사회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므로 가족의 사회망을 “가족 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망에 관한 연구들을 사회망의 종류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친척

가족의 사회망에 대한 연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친척에 관한 연구이다. 사회계층별로 친척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Sussman 과 Burchinal(1962)은 여러연구를 종합한 결과 상층계급에서는 자녀들이 결혼 후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 및 친척들로부터 계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하층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친척간의 교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Farber(1974)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친척이므로 하층계급에서는 친척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간의 결혼하는 비율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Hendrix(1979)는 산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여 3가지의 상반된 연구결과로 분류하였다. 6개의 연구는 사회계층과 친척간의 교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고 1개의 연구는 정적인 관계,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9개의 연구는 부적인 상관관계,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친척과의 교류가 적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data로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회계층과 친척간의 교류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고, 이주해 나간 사람들에게는 직업이 친척간의 교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자 중에 노동자층이 상층보다 친척간의 교류가 더 많은 것은 친척간의 의무감이나 사랑 때문은 아니며, 노동자층의 직업은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친척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이주 결정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친척간의 교류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활발한 편인데 전 사회계층에 대한 비교연구와 함께 일부계층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다. 우선 하층계급에 관한 연구로는 김주희(1990)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사례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의 친척접촉 범위는 혈연적, 공간적으로 매우 축소되어 근친에 한해 접촉이 유지되며 또한 그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그들의 빈곤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친척의 혈연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도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친척사이의 경제적 협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 외에 친척관계가 부계위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층계급에 대한 다른 연구들도 친척간의 경제적 협력이 거의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 자녀간에도 자녀들의 출가후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지며 형제자매간에도 이자를 주고 받는 등 (조은, 1990)경제적 호혜관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상은 조금 나은 형편의 자영 소상공인 가족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민자, 1990).

최재석(1975)은 도시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를 조사하여 부계친 보다는 처계친과 더 친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가효(1984)도 도시중류 가족의 친족관계를 조사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도시주부는 시부모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시가쪽 친척보다 친정쪽 친척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정쪽 친척과의 교류가 더 밀접한 편이다.

이동원(1984)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친척관계를 조사하여 사회계층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친정에 더 자주 간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친척과 만나는 회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시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으며, 교육정도가 높거나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정도가 높은 계층에서 정서적인 관계면에서도 친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도가 높

올수록 친정과의 교류시 부부동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원주(1988)는 기혼남녀의 친족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친척간의 심리적 거리를 사회계층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하층보다 중상층에서 모계친족과 처계친에 대해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업유무에 따라 직업이 없는 여성은 남편부계친족과 친정부계친족을 비슷한 정도로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직업이 있는 여성은 남편 부계친족보다 친정 부계친족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원, 옥선화(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시가와의 정적적 유대가 낮아지며, 친정과의 상호작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하층계급에서는 친척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척간의 교류가 오히려 제한을 받으며, 중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친척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층이 높아질수록 부계친보다는 처계친과 더 친밀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이웃

친척관계에 관한 연구에 비해 이웃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김태영(1986)의 도시영세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이웃관계는 일반 도시주민들보다 강현편으로 이웃끼리 서로 왕래하며 음식을 나누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석(1983)은 대도시의 중류아파트의 이웃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류층의 이웃관계는 친족의 결합만큼 강하지는 않아도 그 중요성이 상실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주부의 직업유무는 이웃관계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기(1984)는 중소도시의 이웃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주부들이 이웃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그 접촉의 범위가 6~10 가구 정도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웃과의 접촉범위가 주부의 교육정도, 가장의 직업, 가장의 월 수입 등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기, 홍동식(1982)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지역에서의 이웃관계를 비교 조사하였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개인의 수입이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나 아파트지역에서는 수입이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지역별로 사회계층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어, 이와같이 몇 편 안되는 연구들로는 사회계층에 따른 이웃관계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3. 그 외의 사회망

친척, 이웃관계 이외의 사회망은 친구관계, 단체에의 참여, 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구를 몇 편 찾을 수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Babchuk 과 Bates(1963)는 중산층 부부의 친구관계를 조사하여 부부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Simon 과 그 동료들(1970)은 중산층과 노동자계층의 여성들의 친구관계를 비교한 결과 노동자계층의 여성은 이웃을 그들의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며, 중산층 여성은 남편과 친구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cPherson 과 Smith-Lovin(1982)은 단체에의 가입을 약한 유대관계로 보고 가입단체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달라짐을 밝혔는데,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가입단체의 크기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입단체의 크기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김시월(1991)의 도시주부들의 계참여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시주부들의 계참여는

수입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사회망에 대한 종합적 연구

두 종류 이상의 사회망을 함께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중산층 부부의 친구, 친족관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Babchuk, 1965).

Babchuk 는 이 연구에서 중산층 부부의 친족관계는 친구관계와 무관하며 친구와의 접촉정도도 마찬가지로 친척과의 접촉정도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부부의 친구관계는 주로 남편이 주도하는 경향이며 자녀는 친구와의 상호작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부부의 사회참여도와의 관계 (Adams & Butler, 1968) 를 보면 중산층은 각종 사회활동참여시 부부동반의 경향이 뚜렷하며, 노동자계층의 특성은 친척관계가 주요한 사회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참석은 직업적 지위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ovetter(1974) 는 직업을 구할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친척 및 친구와 직장파 관련된 사람으로 분류한 후 수입이 낮은 직업인 경우 친척 및 친구를 통해 직장을 구한 경우가 많으며 수입이 높은 직업인 경우 친척 및 친구를 통해 직장을 구한 경우가 적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Oh(1988)는 미국의 한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한국 이민가족의 사회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주요사회망을 밝혔다. 교회가 가족의 주요사회망으로 나타난 가족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부인의 친척, 동창회, 남편의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변화순(1990) 의 영세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영세지역의 주민들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친척과 도움을 주고 받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은 주로 친척에게서, 일상적인 도움은 이웃에게서 받으며 그 외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은 약한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몇몇 사회망이나 일부계층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을 뿐 각종 사회망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사회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각종 사회망과의 관계를 사회계층별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각종의 사회망을 함께 연구하여 어떠한 사회망이 가족의 주요한 사회망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Oh(1988) 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이민가족에 대한 연구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여러가지 사회망과의 상호작용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사회망이 가족의 주요사회망인지를 밝히고 계층별 비교를 하고자 한다.

둘째로, 위 선행연구들 중 사회망에의 가족참여도를 연구한 논문은 이동원(1984)의 연구와 Adams 와 Butler(196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동원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친정과의 교류시 부부동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고, Adams와 Butler도 노동자 계층에 비해 중산층이 사회활동 참여시 부부동반의 경향이 더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정과 같은 친척외의 다른 사회망에 참여할 때 부부 및 가족동반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층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앞에서 고찰한 연구들 중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 Hendrix (1979)의 연구와 Granovett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endrix는 노동자 계층에서는 상층계급보다 친척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하여 구직시 도움을 받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였고 Granovetter도 수입이 낮은 직업인 경우가 수입이 높은 직업인 경우보다 친척 및 친구를 통해 직장을 구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구직시 어느 정도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지,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번 수     | 구 분                | 빈 도 | 백분율(%) |
|---------|--------------------|-----|--------|
| 부인의 학력  | 중졸 이하              | 48  | 15.2   |
|         | 고졸                 | 134 | 42.4   |
|         | 대졸                 | 94  | 29.7   |
|         | 대학원 이상             | 40  | 12.7   |
| 남편의 학력  | 중졸 이하              | 24  | 7.7    |
|         | 고졸                 | 82  | 26.4   |
|         | 대졸                 | 119 | 38.3   |
|         | 대학원 이상             | 86  | 27.7   |
| 부인의 직업  | 전문, 사무직            | 58  | 18.4   |
|         | 노동 및 기타            | 30  | 9.5    |
|         | 직업 없음              | 228 | 72.2   |
| 남편의 직업  | 전문, 사무직            | 173 | 61.3   |
|         | 노동 및 기타            | 109 | 38.7   |
| 가 주 수 입 | 월 80만원 이하          | 107 | 35.0   |
|         | 월 80만원 이상~120만원 이하 | 114 | 37.3   |
|         | 월 120만원 이상         | 85  | 27.8   |
| 부인의 종교  | 없 음                | 64  | 20.8   |
|         | 기독교(개신교)           | 103 | 33.6   |
|         | 천주교                | 61  | 19.9   |
|         | 불 교                | 79  | 25.7   |
| 남편의 종교  | 없 음                | 122 | 40.7   |
|         | 기독교(개신교)           | 77  | 25.7   |
|         | 천주교                | 41  | 13.7   |
|         | 불 교                | 60  | 20.0   |
| 부인의 연령  | 30세 이하             | 26  | 8.4    |
|         | 31~35 세            | 68  | 21.9   |
|         | 36~40 세            | 86  | 27.6   |
|         | 41~45 세            | 88  | 28.3   |
|         | 46~50 세            | 36  | 11.6   |
|         | 51세 이상             | 7   | 2.2    |
| 남편의 연령  | 30세 이하             | 7   | 2.3    |
|         | 31~35 세            | 38  | 12.4   |
|         | 36~40 세            | 65  | 21.2   |
|         | 41~45 세            | 89  | 29.0   |
|         | 46~50 세            | 81  | 26.4   |
|         | 51세 이상             | 27  | 8.8    |

이다.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계층별 비교를 하기위해 표본에 사회계층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2개교씩 선정하되, 각각 1개교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나머지 1개교는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어머니에게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1989년 12월에 실시되었다.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와 남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318명의 주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사회망의 종류에는 시가, 친정, 종교집단, 동창회, 직장동료, 이웃, 계모임 등을 포함시켜 각 사회망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회계층별 비교를 위해 부인의 학력, 직업, 남편의 학력, 직업, 가족수입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학력, 직업, 수입등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회계층을 측정하기위해 이 변수들을 사용하되, 여러사회망과의 관계에서 부부중 누가 주체가 되는가가 사회망에 따라 달라지고 남편, 부인 각각의 직업,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망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직업, 학력의 경우는 남편, 부인의 것을 각각 묻고, 수입의 경우는 각각의 수입보다는 가족 총 수입이 사회계층을 말해준다고 생각되므로 가족 총 수입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종교, 연령, 형제순위 등의 변수도 주요사회망과의 관계를 보기위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백분율, Chi-Square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부인

의 학력이 대졸, 대학원 이상을 합하여 42.4%나 되고, 남편의 학력이 대졸, 대학원 이상이 66%나 되어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의 직업도 직업이 있는 경우의 3분의 2정도가 전문, 사무직이며, 남편의 경우도 5분의 3이상이 전문, 사무직으로 나타났다. 1989년 전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본 논문의 조사에서는 수입이라는 용어로 질문함)이 804,900원, 서울의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862,700원 인데(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본 조사 대상자의 가족의 월 수입을 보면 월 80만원 이상이 65.1%로서 본 조사대상자의 수입 분포도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조사대상자는 사회계층이 중상층으로 편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 계층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2. 주요 사회망

가족과 사회망과의 상호작용은 여러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망의 종류에 따라 어느 측면의 교류가 주로 이루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망의 종류에 따라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을 비교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여러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사회망이 가족의 가장 주요한 사회망으로 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측면의 교류를 종합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가족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교류의 정도가 높은 사회망이 어떠한 사회망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각 사회망과의 교류를 접촉빈도, 경제적 교환, 서비스의 교환, 정서적 교환<sup>1)</sup>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후 4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각 가정과 가장 교류의 정도가 높은 사회망을 "주요 사회망"이라 하고 그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표 2). 가장 빈도가 높은 사회망은 친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1) 접촉빈도는 ① 거의 접촉이 없거나 가끔 있는 경우  
 ② 정기적 모임, 행사에만 참여하고 접촉하는 경우  
 ③ 정기모임, 행사 이외에도 더 참여하고 자주 접촉하는 경우

〈표 2〉 주요 사회망

| 주요 사회망   | 빈 도 | 백 분 율 |
|----------|-----|-------|
| 시 가      | 51  | 16.0  |
| 친 정      | 120 | 37.7  |
| 종교집단     | 48  | 15.1  |
| 부인의 동창회  | 3   | 0.9   |
| 남편의 동창회  | 9   | 2.8   |
| 남편의 직장동료 | 13  | 4.1   |
| 이 웃      | 57  | 17.9  |
| 계        | 13  | 4.1   |
| 기 타*     | 4   | 1.2   |
| 합 계      | 318 | 100.0 |

\* 2개 이상의 사회망이 주요사회망인 경우

이웃, 시가, 종교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정이 주요사회망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시가와는 의례적인 면에서의 교류가 많고 친정과는 정서적 교류가 많다는 연구결과(김경원, 옥선화, 1989)와 비교해 볼 때, 본 논문에서는 접촉빈도, 경제적 교환, 서비스의 교환, 정서적 교환의 4가지 측면을 포함시켰을 때의 결과이므로 이것으로 친정과의 교류가 정서적 교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다른 측면에서의 교류도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 이외의 사회망(남편의 직장동료, 남편의 동창회, 부인의 동창회, 계)은 빈도가 매우 작으므로 다음의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주요사회망이 친정, 이웃, 시가, 종교집단인 경우만 포함하였다.

사회계층과 그 가족의 주요 사회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학력, 직업, 남편의 학력, 직업, 가족수입별로 살펴보았을 때, 각 집단별로 주요사회망의 종류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주요사회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망의 종류에 종교집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교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종교를 선정하였다. 부인의 종교와 남편의 종교는 모두 주요사회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 부인이나 남편의 종교는 주요사회망과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가 없을 경우는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시댁과 친정이 주요사회망으로 기능하는 비율이 높으며 개신교, 천주교의 경우 다른 경우보다 종교집단이 주요사회망으로 기능하는 비율이 높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불교인 경우에는 타집단에 비해 이웃이 주요사회망으로 기능하는 비율이 높다. 개신교, 천주교의 경우 교인 상호간의 친교와 활동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종교를 가진 경우 종교집단이 가족의 주요 사회망이 되는 일이 많으며 종교가 없거나 불교의 경우

〈표 3〉 부인의 종교와 주요 사회망

| 주요사회망 | 종 교      |          |          |          | 합계  |
|-------|----------|----------|----------|----------|-----|
|       | 없 음      | 개신교      | 천주교      | 불 교      |     |
| 시 가   | 12(23.5) | 16(17.2) | 8(15.4)  | 12(17.4) | 48  |
| 친 정   | 29(56.9) | 36(38.7) | 23(44.2) | 28(40.6) | 116 |
| 종교집단  |          | 28(30.1) | 11(21.2) | 8(11.6)  | 47  |
| 이 웃   | 10(19.6) | 13(14.0) | 10(19.2) | 21(30.4) | 54  |
| 합 계   | 51(100)  | 93(100)  | 52(100)  | 69(100)  | 265 |

(Chi-Square = 28.03\*\*\*)

\*  $P < 0.05$ , \*\*  $P < 0.01$ , \*\*\*  $P < 0.001$

( )안의 숫자는 종방향의 백분율 임.

(이 주는 본 논문에 있는 모든 표에 적용됨)

경제적 교환은 ① 경제적 도움을 거의 주고 받지 않는 경우

② 필요할 때 서로 꾸어주는 경우

③ 꾸어주는 것 외에도 어려울 때는 돈을 모아서 주기도 하는 경우

서비스 교환은 ① 생활에서의 도움을 거의 주고받지 않는 경우

② 큰 일이 있을 때만 돕는 경우

③ 큰 일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잔일도 돕는 경우

정서적 교환은 ①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경우

② 한 명 정도 있는 경우

③ 두명 이상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나누어 각 측면의 교류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4〉 남편의 종교와 주요 사회망

| 종교<br>주요사회망 | 종교       |          |          |          |     |
|-------------|----------|----------|----------|----------|-----|
|             | 없음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합계  |
| 시 가         | 25(24.8) | 12(17.1) | 4(10.5)  | 8(15.7)  | 49  |
| 친 정         | 51(50.5) | 26(37.1) | 16(42.1) | 20(39.2) | 113 |
| 종교집단        | 5(5.0)   | 23(32.9) | 11(28.9) | 7(13.7)  | 46  |
| 이 웃         | 20(19.8) | 9(12.9)  | 7(18.4)  | 16(31.4) | 52  |
| 합 계         | 101(100) | 70(100)  | 38(100)  | 51(100)  | 260 |

Chi-Square = 32.34\*\*\*

에는 그 밖의 사회망이 주요 사회망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 성장기 때의 시대적 상황이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망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연령별 차이도 살펴보았다. 연령과 주요사회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인의 연령집단별로 주요사회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편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표 5). 남편의 연령이 41~45 세인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시

〈표 5〉 남편의 연령과 주요 사회망

| 연령<br>주요사회망 | 연령       |          |          |     |
|-------------|----------|----------|----------|-----|
|             | 40세 이하   | 41~45세   | 46세 이상   | 합 계 |
| 시 가         | 14(14.3) | 21(26.3) | 13(14.8) | 48  |
| 친 정         | 46(46.9) | 25(31.3) | 45(51.1) | 116 |
| 종교집단        | 12(12.2) | 18(22.5) | 15(17.0) | 45  |
| 이 웃         | 26(26.5) | 16(20.0) | 15(17.0) | 57  |
| 합 계         | 98(100)  | 80(100)  | 88(100)  | 266 |

Chi-Square = 13.26\*

가가 주요사회망인 비율이 높으며 40세 이하집단과 46세 이상집단은 41~45 세 집단에 비해 친정이 주요사회망인 비율이 높다. 남편의 연령이 45세 이하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친정이 주요 사회망인 비율이 높아 젊은 연령층에서는 점점 과거와 같은 시가 위주의 관계에서 벗어나 친정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46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시 친정이 주요 사회망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년기,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정에서의 부인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친정과의 교류

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특성상 부계제이며 장남을 중시하므로 형제순위에 따라 주요사회망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어 형제순위와 주요 사회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인의 형제순위는 주요 사회망과 무관하나 남편의 형제순위는 주요사회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예측한 대로 장남인 경우 그 외의 경우보다 시가가 주요사회망인 비율이 높으며 반면 친정과 종교집단이 주요사회망인 비율은 낮다. 장남의 경우 차남이하의 경우보다 이웃이 주요사회망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표 6〉 남편의 형제순위와 주요 사회망

| 형제순위<br>주요사회망 | 형제순위     |          |     |
|---------------|----------|----------|-----|
|               | 장 남      | 그 외      | 합 계 |
| 시 가           | 28(23.5) | 23(15.3) | 51  |
| 친 정           | 45(37.8) | 72(48.0) | 117 |
| 종교집단          | 14(11.8) | 32(21.3) | 46  |
| 이 웃           | 32(26.9) | 23(15.3) | 55  |
| 합 계           | 119(100) | 150(100) | 269 |

Chi-Square = 11.82\*\*

### 3.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사회망에 배우자 및 자녀의 참여여부를 살펴보고 가족의 참여여부가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았다(표 7).

부인의 동창회의 경우 부부 또는 가족동반하는 비율이 21% 정도인데 남편의 동창회의 경우 32% 정도가 부부 또는 가족동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장동료들의 모임에도 남편의 동창회와 비슷하게 33% 정도가 부부 또는 가족동반을 하며 부인의 계모임에는 14% 정도가 부부 또는 가족동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사회망 모두 대부분 관련된 본인 혼자 참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중 부인이 관련된 사회망은 남편이 관련된 사회망보다 혼자 참석하는 비율이 더 높다. 가족 동반 여부를 사회계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학력과 본인 동창회, 남편동창회, 계모임에의 가족동반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직장동료 모임에의

## 〈표 7〉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 부인의 동창회

|      | 빈도  | 백분율(%) |
|------|-----|--------|
| 혼자참석 | 126 | 79.2   |
| 부부동반 | 25  | 15.7   |
| 가족동반 | 8   | 5.0    |
| 계    | 159 | 100    |

## 남편의 동창회

|      | 빈도  | 백분율(%) |
|------|-----|--------|
| 혼자참석 | 153 | 67.7   |
| 부부동반 | 62  | 27.4   |
| 가족동반 | 11  | 4.9    |
| 계    | 226 | 100    |

## 남편의 직장동료

|      | 빈도  | 백분율(%) |
|------|-----|--------|
| 혼자참석 | 189 | 67.7   |
| 부부동반 | 80  | 28.6   |
| 가족동반 | 11  | 3.9    |
| 계    | 280 | 100    |

## 부인의 계모임

|      | 빈도  | 백분율(%) |
|------|-----|--------|
| 혼자참석 | 143 | 85.6   |
| 부부동반 | 16  | 9.6    |
| 가족동반 | 8   | 4.8    |
| 계    | 167 | 100    |

참석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 부인이 대졸인 경우 부부 또는 가족을 동반하는 비율이 20% 정도로서 고졸이하(38%)나 대졸이상(41%)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대졸 이상은 37명으로서 사례수가 적어 그 비율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므로,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만 비교해 보면 대졸일 경우는 부인도 자신의 직업이 있거나 자기나름의 독립된 생활이 있어서 고졸인 경우보다 오히려 남편직장동료 모임에 부부 또는 가족동반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부인의 직업유무는 4가지

의 사회망 모두의 가족동반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에 따라 부인의 동창회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 여부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표 8-2). 남편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인 동창회에 부인 혼자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 남편의 학력과 남편 동창회, 남편 직장동료모임, 부인의 계모임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남편의 직장동료모임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여부와 관계가 있다(표 8-3). 전

〈표 8-1〉 부인의 학력과 남편직장 동료모임에의 가족동반

| 학 력        | 고졸 이하    | 대 졸      | 대학원 이상   | 합 계 |
|------------|----------|----------|----------|-----|
| 참여여부       |          |          |          |     |
| 혼자 참석      | 97(62.2) | 69(80.2) | 22(59.5) | 188 |
| 부부 또는 가족동반 | 59(37.8) | 17(19.8) | 15(40.5) | 91  |
| 계          | 156(100) | 86(100)  | 37(100)  | 279 |

Chi-Square = 9.44\*\*

〈표 8-2〉 남편의 학력과 부인의 동창회에의 가족동반

| 학 력        | 고졸 이하    | 대 졸      | 대학원 이상   | 합 계 |
|------------|----------|----------|----------|-----|
| 참여여부       |          |          |          |     |
| 혼자 참석      | 28(66.7) | 52(83.9) | 46(85.2) | 126 |
| 부부 또는 가족동반 | 14(33.3) | 10(16.1) | 8(14.8)  | 32  |
| 계          | 42(100)  | 62(100)  | 54(100)  | 158 |

Chi-Square = 6.09\*

〈표 8-3〉 남편의 직업과 남편의 직장동료모임에의 가족동반

| 참여여부 \ 직업  | 노동 및 기타  | 전문, 사무직   | 합 계 |
|------------|----------|-----------|-----|
| 혼자 참석      | 50(58.1) | 123(71.9) | 173 |
| 부부 또는 가족동반 | 36(41.9) | 10(28.1)  | 84  |
| 계          | 86(100)  | 171(100)  | 257 |

Chi-Square = 4.34\*

〈표 8-4〉 가족수입과 남편동참회의 가족동반

| 참여여부 \ 가족수입 | 월 80만원 이하 | 월 80만원~120만원 | 월 120만원 이상 | 합 계 |
|-------------|-----------|--------------|------------|-----|
| 혼자 참석       | 49(81.7)  | 57(68.7)     | 46(59.0)   | 152 |
| 부부 또는 가족동반  | 11(18.3)  | 26(31.3)     | 32(41.0)   | 69  |
| 계           | 60(100)   | 83(100)      | 78(100)    | 221 |

Chi-Square = 8.13\*

문직, 사무직이 노동 및 기타 (노동, 상업, 사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혼자 참석하는 비율이 더 높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 남편의 동창회, 부인의 동창회, 계모임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수입에 따라 남편동창회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여부에 차이를 보였다(표 8-4). 수입이 높을수록 혼자 참석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가족수입과 부인 동창회, 계모임, 남편 직장동료모임 참석시 부부 또는 가족동반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n 과 그 동료들 (1970)의 연구와 Adams 와 Butler (1968)의 연구를 보면 남편의 직업에 따라 사회계층을 나누었을 때 미국의 중산층의 부부는 노동자계층에 비해 친구를 공유하며 사회활동시 부부동반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남편동창회 참석시 부부동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사회계층이 부부동반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직업적 지위가 높거나 학력이 높을 때 부부동반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부중심의 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족은 사회관계에서 여전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구직과 사회망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혈연, 학연 등의 인간관계가 매우중요시 되어 왔다. 친척, 동창, 동향사람, 또는 같은 교회사람 등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다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어느정도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표 9). 부인의 경우나 남편의 경우 모두 대다수가 (부인- 약 70%, 남편- 약 65%) 공채를 통해 직장을 구했으며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적은 편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혈연, 학연 등의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측

〈표 9〉 구직과 사회망

|      | 부인의 구직 |        | 남편의 구직 |        |
|------|--------|--------|--------|--------|
|      | 빈 도    | 백분율(%) | 빈 도    | 백분율(%) |
| 친 척  | 14     | 18.7   | 50     | 19.4   |
| 동 창  | 4      | 5.3    | 36     | 14.0   |
| 종교집단 | 5      | 6.7    | 5      | 1.9    |
| 공 채  | 52     | 69.3   | 167    | 64.7   |
| 계    | 75     | 100    | 258    | 100    |

했던 결과라고 보겠다. 사회망 중 친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제일 높아 부인, 남편의 경우 모두 약 20% 가량이 친척의 도움으로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매우 적으나 남편의 경우 동창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약 15% 되었다.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가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인의 학력, 직업, 남편의 학력, 직업, 가족수입별로 분석해 보았다. 사례수가 적어 친척, 동창, 종교집단 등 사회망을 묶어서 분석하였다.

부인의 학력별 <표 10-1>로 살펴보면 남편, 부인의 구직시 모두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다. 부인의 직업별 <표 10-2>로 살펴보면 남편, 부인의 구직시 모두 부인의 직업이 노동 및 기타의 경우가 전문, 사무직인 경우보다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다.

남편의 학력별 <표 10-3>로 살펴보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편, 부인의 구직시 모두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다. 남편의 직업별 <표 10-4>로 살펴보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편, 부인의 구직시 모두 남편의

직업이 노동 및 기타의 경우가 전문, 사무직인 경우보다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다.

가족수입별 <표 10-5>로 살펴보면 부인, 남편의 구직시 모두 가족수입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다.

종합해서 볼때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에 높은 경우보다 직장을 구할 때 사회망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사회망중 친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족에서 계층이 낮아질수록 직장을 구할 때 친척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을 구할 때 사회계층이 낮을 수록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직업적 지위

<표 10-3> 남편의 학력과 구직시 도움

| 남편의 학력<br>구직시 도움 | 부인의 구직   |          | 남편의 구직   |           |
|------------------|----------|----------|----------|-----------|
|                  |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
| 사회망의 도움          | 13(65.0) | 9(16.7)  | 43(58.1) | 46(25.6)  |
| 공 채              | 7(35.0)  | 45(83.3) | 31(41.9) | 134(74.4) |
| 합 계              | 20(100)  | 54(100)  | 74(100)  | 180(100)  |
| Chi-Square       | 14.09*** |          | 23.00**  |           |

<표 10-1> 부인의 학력과 구직시 도움

| 부인의 학력<br>구직시 도움 | 부인의 구직   |          | 남편의 구직   |          |
|------------------|----------|----------|----------|----------|
|                  |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
| 사회망의 도움          | 16(61.5) | 7(14.3)  | 61(43.0) | 30(26.1) |
| 공 채              | 10(38.5) | 42(85.7) | 81(57.0) | 85(73.9) |
| 합 계              | 26(100)  | 49(100)  | 142(100) | 115(100) |
| Chi-Square       | 15.69*** |          | 7.19**   |          |

<표 10-4> 남편의 직업과 구직시 도움

| 남편의 직업<br>구직시 도움 | 부인의 구직  |          | 남편의 구직   |           |
|------------------|---------|----------|----------|-----------|
|                  | 노동 및 기타 | 전문, 사무직  | 노동 및 기타  | 전문, 사무직   |
| 사회망의 도움          | 9(52.9) | 12(22.2) | 36(52.2) | 48(28.2)  |
| 공 채              | 8(47.1) | 42(77.8) | 33(47.8) | 122(71.8) |
| 합 계              | 17(100) | 54(100)  | 69(100)  | 170(100)  |
| Chi-Square       | 4.48*   |          | 11.31*** |           |

<표 10-2> 부인의 직업과 구직시 도움

| 부인의 직업<br>구직시 도움 | 부인의 구직   |          | 남편의 구직   |          |           |
|------------------|----------|----------|----------|----------|-----------|
|                  | 노동 및 기타  | 전문, 사무직  | 노동 및 기타  | 전문, 사무직  | 직업 없음     |
| 사회망의 도움          | 12(66.7) | 9(16.4)  | 13(56.5) | 12(21.4) | 66(37.3)  |
| 공 채              | 6(33.3)  | 46(83.6) | 10(43.5) | 44(78.6) | 111(62.7) |
| 합 계              | 18(100)  | 55(100)  | 23(100)  | 56(100)  | 177(100)  |
| Chi-Square       | 14.38*** |          | 9.52**   |          |           |

〈표 10-5〉 가족의 수입과 구직시 도움

| 가족의 수입<br>구직시 도움 | 부인의 구직       |                  |               | 남편의 구직       |                  |               |
|------------------|--------------|------------------|---------------|--------------|------------------|---------------|
|                  | 월 80만원<br>이하 | 월 80만원<br>~120만원 | 월 120만원<br>이상 | 월 80만원<br>이하 | 월 80만원<br>~120만원 | 월 120만원<br>이상 |
| 사회망의 도움          | 13(56.5)     | 8(27.6)          | 2( 8.7 )      | 40(46.5)     | 28(29.5)         | 22(31.0)      |
| 공 채              | 10(43.5)     | 21(72.4)         | 21(91.3)      | 46(53.5)     | 67(70.5)         | 49(69.0)      |
| 합 계              | 23(100)      | 29(100)          | 23(100)       | 86(100)      | 95(100)          | 71(100)       |
| Chi-Square       | 12.58**      |                  |               | 6.67*        |                  |               |

가 높은 직업은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요하므로 쉽게 대체될 수 없으나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직업은 쉽게 대체될 수 있으므로 (Hendrix, 1979) 친척, 친구 등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얻어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생활이나 승진에 동창(선후배 포함)과 도움을 주고 받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부인, 남편의 경우 모두 약 1/3 가량이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동창과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약 1/3정도(부인- 약 30%, 남편- 약 35%)이고, 직장에서의 생활과 승진에 동창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약 1/3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현대 우리나라 사회가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학연과 같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집합주의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사회계층별로 가족과 각종 사회망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친정이 주요 사회망인 경우가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은 이웃, 시가, 종교집단의 순이다. 친정이 주요사회망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은 친정과의 교류가 점차 정서적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의 교류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웃, 시가, 종교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가족의 사회망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이 시가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현대사회에서 소원해지고 있다고 하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주요 사회망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는 오히려 실질상의 교류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집단이 점차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망으로 등장한 것은 과학시대를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사회계층별로는 주요사회망의 종류에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별로 비교해보면 개신교, 천주교 등 교인간의 친교와 활동을 중시하는 종교일 경우 종교집단이 주요한 사회망인 비율이 불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층에서 친정이 주요 사회망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점점 시가위주의 관계를 벗어나 친정과의 교류를 많이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남은 다른 형제에 비해 시가가 주요 사회망인 비율이 높아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가족의 장남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망(동창회, 직장동료모임, 계) 에의 가족동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가족동반하지 않고 혼자 참석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부부중심의 가족제도를 가진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망과의 관계가 부부동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이 핵가족화 함에 따라 친정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가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

부유별의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계층별로 비교해보면 남편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인이 동창회에 혼자 참석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이 전문직, 사무직일 경우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에 혼자 참석하는 경향이다. 이는 미국의 중산층이 노동자계층에 비해 부부동반의 경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 높고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부가 각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력이 높고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부인도 직장이 있거나 독립된 생활영역이 있어 남편, 부인이 관련된 사회망에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등의 이유로 부부가 각자가 관련된 사회망에 혼자 참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에 반해, 가족수입과 가족의 사회망에의 참여도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수입이 높을수록 남편동창회 참석시 부부(가족)동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구할 때 부인이나 남편의 경우 모두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 현대사회가 혈연, 학연을 중시하는 집합주의를 지양하고 능력위주의 개인주의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회로 변해감을 엿볼 수 있다. 사회계층별로 비교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적 지위가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지위가 낮은 경우 전문직과 같은 경우보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망을 통한 정보나 도움을 이용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이 핵가족화함에 따라 시가와는 의무적인 관계로 제한되고 친정과의 교류는 정의적인 면에서 더 다양한 측면으로 교류가 확장되고 있으며 친구관계, 특히 동창관계는 정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사회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의 주요사회망으로서 어떠한 사회망이 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회계층별로 사회망에의 가족참여는 어떻게 달라지며, 구직시 사회망의 도움을 받는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가족의 사

회망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 예를 들면 사회망과의 가치관의 교류라든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라든지 등 사회망 연구의 주제를 확대시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상의 제한으로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사회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강대기, 홍동식,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근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집, 1982, 123~140.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정문사, 1990.
- 3) 김경원, 옥선화,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제 14권, 1989, 1~14.
- 4) 김시월, "도시주부들의 계 참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 29권 제 2호, 1991, 155~167.
- 5) 김주희, "도시저소득층 가족의 친족문제",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논문집 (서울특별시, 한국가족학 연구회), 1990, 155~182.
- 6) 김태영, "도시영세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 대구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2권, 1986, 147~170.
- 7) 박민자, "자영 소상공인 가족의 계급적 관계 재생산", 한국가족론, 서울:도서출판 까치, 1990, 100~128.
- 8) 변화순,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 8권 제 4호, 1990, 7~38.
- 9) 유가효, "도시중류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권 제 2호, 1984, 119~140.

- 10) 이동원,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4, 7~36.
- 11) 이원주,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조은,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한국 가족론, 서울:도서출판 까치, 1990, 178~206.
- 13) 최성기, “한국 중소도시에 있어서의 근린관계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14) 최재석, “아파트지역의 주민구성과 근린관계 - 서울 중류아파트를 중심으로 -”, 도시문제 206, 1983, 37~51.
- 15) 최재석, “도시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인문논집 20, 1975, 155~178.
- 16) Adams, B.N. & Butler J.E., “Occupational status and husband - wife social participation”, Social Forces vol.45, 1968, 501~507.
- 17) Babchuck, N., “Primary friends and kin: a study of the associations of middle class couples”, Social Forces vol.43, 1965, 483~493.
- 18) Babchuk, N. & Bates, A.P., “The Primary relations of middle - class couples: a study in male domin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8, 1963, 377~384.
- 19) Farber, B., “Kinship and class”, in R. L. Coser (ed.), The Family: Its Structures and Func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4, 354~361.
- 20) Granovetter, M.S., Getting a Job,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21) Hendrix, L., “Kinship, social class and mig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1, 1979, 399~407.
- 22) Litwak, E. & Szelenyi, I.,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s: kin, neighbors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4, 1969, 465~481.
- 23) McPherson, J.M. & Smith - Lovin, L., “Women and weak ties: difference by sex in the size of voluntary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7, No.4, 1982, 883~904.
- 24) Milardo, R.M.,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R. M. Milardo (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Sage Publications, 1987, 13~47.
- 25) Oh, S., Korean Immigrant Families and Their Social Network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988.
- 26) Simon, R.J., Crotts, G. & Mahan, L., “An empirical note about married women and their friends”, Social Forces vol.48, 1970, 520~525.
- 27) Sussman, M.B. & Burchinal, L., “Kin family network: unheralded structure in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family functioning”, Marriage and Family Living vol.24, No.3, 1962, 231~240.